

# 아이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한 은 경 / 전복지회 부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Q

저는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 6살 여자아이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이상해요.

모서리에다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서있는 장면을 몇 번 목격했어요. 아마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자위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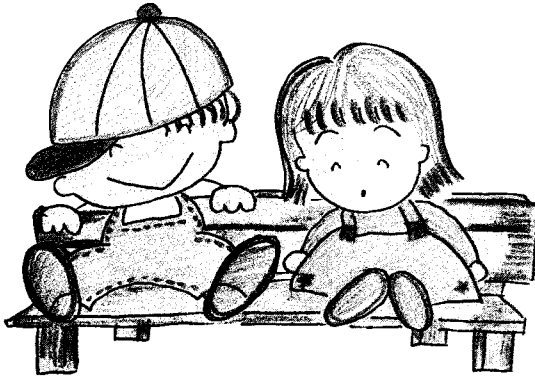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이런 일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선생님께서 아이의 자위행동을 보시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 되시는가 보군요. 그리고 웬지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긴한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도움을 청하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거나 아이의 자위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과정 중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이 자위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성기에서 좋은 기분이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혼자 놀거나 심심할 때 우연히 만지게 된 성기에 주의를 돌려 쾌감의 대상으로 하는 손장난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아이가 자위를 시작한 기미를 보이게 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흥미있는 놀이를 유도하여 아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밖에 나가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한다든지하여 주의를 전환하도록 함으로 아이가 자위행위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가 한참 진행중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하고,

성추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라면 그대로 놔두도록 합니다. 하던 것을 못하게 하면 욕구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자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평소 다른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지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위행동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아이를 위협하고 공포심과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더 큰 해독이 될 수 있으므로 급히 고치려는 마음을 삼가시고 “거기는 매우 중요한 곳이야. 나중에 \*\*같이 예쁜 아기가 나오는 곳인데 너무 많이 만지면 안돼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며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치원부터 성교육을 시키는 추세입니다. 유치원에서도 성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흔하므로 성교육은 일찍 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하고, 성추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부모나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의 진지하고 솔직한 태도가 아이의 성에 대한 혹은 자위행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생님께서 먼저 성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P114